

## 〈天君紀〉의 修養論 形象化, 그 志向價値에 대한 새로운 認識

신 태 수\*

- I. 문제제기
- II. 修養論 중심의 天君談論, 敎述에서 敍事로
- III. 〈天君紀〉의 修養論 形象化와 그 志向價値
  - 1. 構成과 人物形象
  - 2. 心學的 志向價値
- IV. 〈천군기〉의 지향가치에 대한 새로운 認識
  - 1. 本性의 免疫力과 그 治癒 機能
  - 2. 心の 宇宙의 性格과 主體的 位相
- V. 결론

### 국문초록

〈천군기〉는 天君談論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 천군담론이 종래에는 修養論을 설명·전달하는 敎述 갈래였지만, 〈천군기〉에 이르러 수양론을 형상화하는 敍事 갈래, 그 중의 소설로 전환되었다. 갈래 전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군기〉의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天君과 忠臣과 敵將이 주요 인물이다. 천군은 未發時의 涵養을 소홀히 해 本性을 잃고, 충신은 수양을 게을리하는 천군을 질타하고, 적장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djgigigj@hanmail.net

은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천군기>의 화자는 적장이 惡人이기보다는 잇속에 밝은 자라고 소개하며, 천군이 충신의 도움을 받아 본성을 되찾는다고 역설한다. <천군기>의 志向價值는 현대인에게 교훈 두 기지를 제공한다. 본성이 免疫力과 治癒 機能을 지녔다는 점과 心이 우주적 성격과 주체적 위상을 지녔다는 점이 그것이다. 각 교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들면 다음과 같다. 도덕적 본원, 즉 仁의 함양 노력이 첫 번째 교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고, 인육의 억제와 천지만물의 生意 체인 노력이 두 번째 교훈을 구체화하는 방안이다.

◆ 주제어

天君談論, <천군전>, 涵養, 免疫力, 우주적 성격, 주체적 위상, 哲學 治癒

## I. 문제제기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역주 사업〉이 7년 만에 막을 내렸다. 8명의 역주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01편의 고소설을 역주하고 그 성과를 56권에 담았다. 역주 사업의 기간치고 7년은 긴 편이다. 상업성도 없고 빛도 나지 않는 역주 사업을 오래 전개할 수 있었던 까닭은 택민 김광순 선생의 노력 때문이었다. 택민 선생은 대구시로부터 후원비를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한편 역주자들을 끊임없이 독려했다. 택민 선생의 노력을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후학들이 역주본을 통해 高附加價値를 창출해야 한다.<sup>1)</sup> 역주본 〈간행사〉에서 언급했듯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역주본을 현대 감각에 맞게 해석한다든지 문화콘텐츠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작업도 좋은 방법이 된다.

필자는 ‘100선 고소설 역주본’ 중에서 黃中允의 〈天君紀〉를 주목하고자 한다. 〈천군기〉는 ‘哲學 治癒의 관점을 담은 서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주본 〈천군기〉를 활용한다면 철학 치유의 관점을 드러내기가 용이하리라 본다. 역주본 〈천군기〉는 두 種이다. 3차년의 章回體 역주본과 6차년의 미완성 비장회체 역주본이 그것이다.<sup>2)</sup> 내용이 충실한 장회체 〈천군기〉가 텍스트로서는 적격이다.<sup>3)</sup> 텍스트를 장회체 역주본으로 선택했다면, 소설사적 의의를 파악하는 데<sup>4)</sup>서 그쳐서는 안 되고 ‘철학과 소설의 융복합 양상’을 꿰뚫

1) 모든 역주본(박이정 출판사)의 〈간행사〉 첫 줄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다.

2) 3차년 역주본은 〈천군기〉이고, 6차년의 역주본은 〈천군기2〉이다. 〈천군기〉와 〈천군기2〉 모두 김동협 교수가 역주했다.

3) 역주본의 서지를 간략하게 밝히면, ‘김동협, 『천군기』 -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박이정, 2016, 1~245쪽.’이 된다.

4) 이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다룬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이른바 天君小說의 小說史的 意義를 밝힌 경우만을 들기로 한다. 金光淳, 『天君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80, 1~360쪽. : 金東協, 『黃中允 小說 研究』, 경북대 박사논문, 1990, 1~96쪽. : 金秀永, 『〈天君紀〉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11, 2~157쪽.

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천군기>에 반영된 ‘철학’이 무엇인지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천군기>에 반영된 철학이 心性論이라고 하나, <천군기>에 반영된 철학은 修養論이라고 해야 옳다.<sup>5)</sup>

<천군기>가 수양론과 연관이 깊은 근거는 작품 자체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心의 테두리 안에 性을 의인화한 ‘天君’, 敬을 의인화한 ‘惺惺翁’과 ‘主一翁’, 人欲 혹은 情을 의인화한 ‘欲氏’와 ‘慾生’, 外物을 의인화한 ‘越白’과 ‘歡伯’, 意를 의인화한 ‘誠意伯’ 등을 대거 등장시킨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性’이니 ‘情’이니 ‘人欲’이니 하는 제재는 심성론에 입각해 있지만, 심성론의 제재가 취하고자 하는 ‘敬’이니 ‘天理’니 하는 志向價值는 수양론에 입각해 있다. 제재로 보면 심성론이 반영되었고, 지향가치로 보면 수양론이 반영되었다. <천군기>에서는 ‘천리를 잃어버린 천군이 敬을 통해 천리를 회복한다.’고 하므로, 心의 지향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心의 제재에 시선을 고정시켜 <천군기>가 심성론을 형상화했다고 하지 말고, 心의 지향가치를 고려하여 <천군기>가 수양론을 형상화했다고 해야 타당하다.

심성론을 형상화했다고 여기느냐 수양론을 형상화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천군기>에 대한 해석 방법이나 콘텐츠 구축 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제재의 차원에서 심성론을 형상화했다고 여기면 철학과 문학의 점점 양상을 확인하는 데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지향가치의 차원에서 수양론을 형상화했다고 여기면 철학과 문학의 융복합 양상을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시각을 지녀야 좋은지는 자명하다. 현대인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제재의 차원을 뛰

5) 심성론이란 ‘心·性·情의 개념과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존재의 양상을 다룬 성리학 이론’을 가리키고, 수양론이란 ‘修己治人이라고 할 때의 修己에 해당되는 存心養性の 성리학 이론’을 가리킨다. <천군기>에서는 心·性·情을 다루기는 하나, 주안점은 어디까지나 存心養性에 놓여 있다. 정황이 이렇다면 수양론을 형상화했다고 규정해야 마땅하나,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친편일률적으로 심성론을 형상화했다고 규정한다. 이런 관점이 <천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천군서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이다.

어넘어 지향가치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향가치의 차원에서 <천군기>에 접근한다는 점과 철학 치유의 문화콘텐츠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방법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믿는다.

## II. 修養論 중심의 天君談論, 敎述에서 敍事로.

한국의 16C는 哲學이 文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시기였다. 퇴계·남명과 같은 걸출한 사상가가 등장해서 철학 논변을 詩와 文을 통해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철학 논변을 문학 속에 담는 까닭은 문학적 소양을 발휘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16C의 엄혹한 현실을 사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戊午史禍를 제외한 여타 士禍가 16C에 일어났다. 16C 사림과 유학자들에게 정치관은 부조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죄목도 모른 채 賜藥을 마셔야 하는 광경을 듣거나 목격했기 때문이다. 당대 賢人들은 人欲이 곧 원인이라고 보고 存養에서 대안을 찾았다.<sup>6)</sup> 대안을 외치다가는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은밀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天君에 대한 談論, 즉 天君談論이다.

천군담론은 『心經附註』로부터 촉발되었다.<sup>7)</sup> 『심경부주』에서는 ‘心’,

6) 退溪와 南冥이 이런 언급을 했다. 퇴계는 戊辰六條疏, 『退溪全書』卷6, 疏의 제3조에서 心을 天君이라고 하며 存養해서 人欲을 없애고 天理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疏의 제4조에서는 俗學으로 인해 “기회를 엿보고 틈새를 타서 요리 붙고 조리 붙는 무리(乘機抵巇 反側欺負之徒)”가 생겨났다고 하며 바른 정치로써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남명은 神明舍銘, 『南冥集』卷1, 銘에서 시속 학문이 “입에 발린 이치(口上之理)”와 “귀 언저리의 학문(耳底之學)”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그 원인을 살펴 主敬으로 存心해야 한다고 했다. 양자는 서로 논조는 달리할지언정, 문제의 원인이 人欲이고 그 해법이 存養이라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7) 천군담론과 『심경부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저가 있다. 대표적인 논저를 소개

‘敬’, ‘慾’, ‘誠意’, ‘中’ 등의 개념을 다양한 비유어로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心을 ‘主人翁’이라고 하고, 敬을 ‘主一’과 ‘惺惺’이라고 하고, 敬이 가져오는 肯定的 功能을 ‘中’이라고 하고, 中을 보존할 때의 상태를 ‘天理’라고 한다. 『심경부주』에는 이런 비유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의 제일 앞쪽에 程復心의 <心學圖>를 배치하여 심학 이론을 집약적으로 제시했다. 비유어와 圖像은 南冥과 退溪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남명이 『심경부주』에 의거하여 <神明舍圖·銘>을 마련하고 퇴계가 『심경부주』 <심학도>를 차용하여 『聖學十圖』 <心學圖說>을 마련했다는 점이 그 구체적인 증거이다. 남명과 퇴계가 『심경부주』를 이처럼 인정했으니, 남명과 퇴계의 제자들이 『심경부주』에 의거해서 천군담론을 마련하고 서사를 펼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천군담론은 東岡의 <천군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상대방과 주고받는 목소리가 담론의 형성 요건이라고 할 때, <천군전>의 創作 緣邊에는 천군담론을 형성하는 여러 목소리가 뒤섞였을 가능성이 높다. 검증이 가능한 담론 형성의 정황은 대략 세 측면이다. 創作動機와 受容美學과 作中人物의 측면이 그것이다. 남명이 東岡 金宇顒에게 傳을 지으라고 할 즈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가 그 첫 번째이고, 作者와 讀者가 작품의 내용을 놓고 의견을 확인할 즈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가 그 두 번째이고, 천군과 충신이 政事를 놓고 주고받거나 충신과 간신이 戰場에서 血戰을 벌이며 주고받거나 간신과 간신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 합심하거나 할 즈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가 그 세 번째이다. 세 측면의 목소리를 점검하면, <천군전>의 특징이나 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하면 다음과 같다. 장봉수, 「<天君傳>과 <愁城誌>의 비교 연구」, 『국학연구논총』15, 태민국학연구원, 2015, 134~137쪽. : 金秀永, 앞의 책, 13~20쪽. : 강혜규, 「천군계 작품의 사적 고찰」, 『정신문화연구』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05~310쪽.

□ 첫 번째 목소리

- 창작동기의 측면
- 남명이 東岡 金宇顥에게 〈天君傳〉을 지으라고 할 즈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

□ 두 번째 목소리

- 受容美學의 측면
- 作者와 讀者가 작품의 내용을 놓고 의견을 확인할 즈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

□ 세 번째 목소리

- 作中人物의 측면
- 천군과 충신이 政事를 놓고 주고받거나 충신과 간신이 戰場에서 血戰을 벌이며 주고받거나 간신과 간신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 합심하거나 할 즈음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목소리

첫 번째 목소리는 『東岡集』〈年譜〉에 담겨 있다. “남명 선생이 일찍이 신명사도를 찬하고 동강에게 명해서 전을 짓게 했다.(南冥先生嘗撰神明舍圖 命先生作是傳)”고 하는 언급이 그것이다. 대화 내용을 개괄·압축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남명의 〈신명사도·명〉과 동강의 〈천군전〉이 지닌 공통점을 추출하면 원래 목소리를 생생하게 복원시킬 수 있다. ‘천군과 충신의 등장’, ‘간신의 반란과 천군 도피’, ‘간신 응징과 천군의 복권’이 양 자료의 공통점이다. 공통점에 의거할 때, 남명은 동강에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천리의 행방을 추적하고 정치 상황에 빚대어 형상화하라고 요청했고, 동강은 그런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응답했으리라고 여겨진다. 〈연보〉의 문맥으로 보아, 남명의 목소리와 동강의 목소리는 괴리가 없다. 남명의 목소리는 원인이고 동강의 목소리는 결과라고 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두 번째 목소리는 〈천군전〉과 선행 천군 기록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 천군 기록은 『심경부주』와 〈신명사도·명〉과 李楨의 〈神明舍賦〉<sup>8)</sup>이다. 동강은 선행 천군 기록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선행 천군

8) 李相弼, 「龜巖 李楨의 學問 標의 - 〈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23,

기록에서 심학 개념을 다양하게 뽑아내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성과로 보아, 동강이 선행 천군 기록에서 개성 있는 작자의 목소리를 포착했을 성싶다. 『심경부주』는 천군 기록의 원조이고 <신명사도·명>은 『심경부주』를 창의적으로 수용한 제1차 작품이고, <신명사부>는 <신명사도·명>을 창의적으로 수용한 제2차 작품이니, 동강이 포착한 목소리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녔으리라 여겨진다. 남명이 傳을 지으라고 하자 쉽게 응할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천군전>은 ‘선행 천군 기록에 든 작자의 목소리’와 ‘傳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남명의 목소리’를 창의적으로 융합해낸 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세 번째 목소리는 작품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천군담론이 서사를 지향한다면 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낼 법하나, <천군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천군과 충신 간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있다. 천군이 즉위시에 太宰 敬과 百揆 義에게 잘 보필해 달라고 요청하고, 敬과 義는 흔쾌하게 받아들이며 간언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敬과 義가 심학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경도되었으므로, 개성을 지닌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충신과 간신 간, 간신과 간신 간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sup>9)</sup> 충신과 간신 간의 목소리가 있었다면 갈등 내지 암투와 연관된 내용이 담겼을 터이고, 간신과 간신 간의 목소리가 있었다면 권모술수 내지 탐욕과 연관된 내용이 담겼을

---

慶尙大 慶南文化研究院, 2007, 263~285쪽에서 <신명사부>가 <신명사도·명>의 영향을 받아 지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구암이 퇴계의 문인이면서 남명의 從遊者였다는 사실과 1563년에 남명에게 긴밀하게 교류하며 함께 살자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신명사부>는 늦어도 이 무렵에는 지어졌으리라고 한다. 이 추론에 의거하면 <신명사부>가 <천군전(1566년)>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9) 대화 장면이 나와야 할 위치에 ‘정황 서술’이 대신하고 있다. 충신과 간신이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일 때 주고받는 목소리가 없을 리 없겠고 간신과 간신이 흉계를 꾸밀 때 주고받는 목소리가 없을 리 없겠으나, <천군전>에서는 대체적인 정황만을 소개할 따름이다. 그런 사례를 순차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장군이 밥을 지어 먹는 술을 깨고 머물러 쉬는 막사를 불사르라고 명해 결사적으로 싸울 뜻을 보였다. 백 차례나 혈전을 벌인 끝에 드디어 적군을 대패시켰다.(命破釜 燒廬舍 視士卒必死 血戰百合 賊衆大潰)”라는 언급과 “간사한 신하인 공자 해와 공손 오 등이 실권을 잡고서 태제 경을 내쫓으니(佞臣公子懈公孫傲等用事 逐太宰敬)”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터이다. 이런 목소리가 없으니, 갈등 내지 암투, 권모술수 내지 탐욕을 확인할 길이 없다. 결국, 작중인물의 목소리는 心學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만 동원되는 정도이다.

세 측면의 목소리를 점검해보니, 그 성격이 일정하지 않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소리인 창작동기나 수용미학의 측면은 뚜렷한 편이다. 남명이 傳을 지으라고 한 사실과 <천군전>의 선행 천군 기록이 그런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세 번째 목소리인 작중인물의 측면은 뚜렷하지 않다. 천군과 충신 간의 목소리는 있되, 충신과 간신 혹은 간신과 간신 간의 목소리는 없다. 목소리가 없는 까닭은 작자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천군전>은 작중인물의 측면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을 터이다. 짐작건대, 작중인물이 생동감을 지니면 작자가 설명·전달하려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여긴 듯하다. 설명·전달이 교술 갈래의 특징임에 비추어볼 때, 교술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주인공은 낮추고 理學的 概念은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을 낮춤으로써 무엇을 부각시키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 천군의 정황

천군의 初名은 理이다.

천군이 초심을 잃고 쫓겨난다.

太宰 敬이 주도하여 힘을 기른다.

충신의 분투로 천군이 복귀한다.

#### 각 정황의 이학적 개념

천군이 애초에 지녔던 本性

人欲에 의해 본성을 잃은 천군

敬에 의한 人欲 억제와 本源 涵養

已發之和의 氣象을 확보한 상태

천군의 정황을 보면, 천군은 임금답지 못하다. 반대로 太宰 敬은 매우 빛이 난다. 천군이 임금답지 않아야 敬이 빛나므로, 敬이 빛나기 위해서는 천군이 형편없어야 한다. 敬이라고 할 때, 일정하지 않다. 즉, 未發時의 敬과 已發時의 敬이 있다.<sup>10)</sup> 未發時의 本源을 敬으로 涵養<sup>11)</sup>해야 已

10) 미발시의 특징은 ‘思慮未萌’과 ‘知覺不昧’이다. 朱子와 退溪가 이렇게 언급했다. <천군전>에서는 미발시의 특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화자가 ‘천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지각’을 들추어내어 보여준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사려는 싹트지 않되 의식은 어둡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未發 狀態를 형상화했고, 敬에 의한 미발시의 수양

發時의 中節을 이룬다고 하는 退溪心學에 비추어볼 때, 천군이 열악해진 원인은 미발시의 敬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다.<sup>12)</sup> 나중에 천군의 처지가 바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천군이 이발시, 즉 ‘性이 발하면서 인욕이 생겨날 때’에 敬을 불러들이기는 해도, 敬에게 이끌려가는 양상을 보인다. 천군이 敬을 되돌려서 已發之和의 氣象을 확보하되 완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발시의 敬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발지화의 기상을 미흡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이 점에서 <천군전>은 已發보다는 未發에 주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천군전>에서 제시한 수양론 중심의 천군담론이 교술로써 후대에 이어지는지가 관심사이다.<sup>13)</sup> 결론부터 성글게 밝히면, 이어지기도 하고 이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어지는 측면은 천군담론의 열개이다. 천군이 애초에는 敬과 함께 하면서 性을 보존했으나, 인욕에 휘둘려 敬을 내쫓았다가 국가가 위기에 이르자, 다시 敬을 불러들여 인욕을 퇴치하고 국가를 회생시킨다고 하는 뼈대가 그것이다. 이어지지 않는 측면은 <천군전> 이후의 서사 내의 갈래 변화이다. 인물 간의 갈등이 한층 고조되었

---

이 긴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未發 涵養’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미발론에 대해서는 李承煥, 「退溪 未發論 釐清」, 『退溪學報』116, 退溪學研究院, 2003, 67~102쪽과 홍성민, 「朱子 哲學에서 未發 涵養의 문제」, 『철학연구』104, 대한철학회, 2007, 289~310쪽과 정은해, 「주자의 수양론의 불교적 해석」, 『철학사상』52,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14, 29~39쪽을 참조할 만하다.

- 11) 涵養은 미발 공부를 거론할 때 나오는 용어이다. 미발 공부에는 體認도 있다. ‘체인’이란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敬으로써 性的 氣象과 그 도덕적 본원을 체험하고 직관하는 일’이고, ‘함양’이란 ‘의식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敬으로써 도덕적 가치의 본원을 길러내고 극대화하는 일’이다. 체인이든 함양이든 간에 敬이 필수적 이므로, 敬으로는 체인인지 함양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 분별 기준은 ‘의식의 정지 여부’이다. 의식이 정지된 상태라면 체인이고, 의식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라면 함양이다.
- 12) 금장태, 「退溪의 心合理氣說과 寒州의 心即理說」, 『한국유학의 心說』, 서울대출판부, 2002, 51~56쪽과 金鍾錫, 「마음의 철학 - 그 구조와 작용」, 『퇴계학의 이해』, 일송미디어, 2001, 142~165쪽의 논의 참조.
- 13) <천군전> 이후에 나온 林悌의 <愁城誌>가 黃中允의 <天君紀>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으나 <수성지>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술이 愁城을 격파한다는 논법을 취하기 때문에, 수양론 중심의 서사와는 거리가 멀다.

고, 인물의 심리 변화를 주변 환경과 연계시켜 묘사하기 시작했고, 적대자가 惡人이면서도 개성을 지님으로써 교술이던 천군담론이 서사, 특히 소설로서의 천군담론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sup>14)</sup> 결국, 열개는 유지하면서 갈래가 전환된 바인데, 그 기점이 바로 〈天君紀〉이기 때문에 〈천군기〉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천군기〉가 소설로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천군담론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천군담론이 종래에는 수양론을 설명·전달하는 교술 갈래였다가 〈천군기〉를 기점으로 소설 갈래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天君紀〉와 〈天君衍義〉와 〈義勝記〉와 〈南靈傳〉과 〈天君本紀〉와 〈天君實錄〉이 그런 정황을 말해준다. 천군담론의 방향 전환을 가볍게 치부하고 말 수 없다. 천군담론이 애초에는 부조리 현실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가 〈천군기〉 창작 이후부터는 교훈과 흥밋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니, 〈천군기〉를 기점으로 하여 천군담론이 새로운 영역을 마련했다고 할만하다. 천군담론의 새로운 영역 창조는 철학과 문학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공동의 몫이다. 그런 정황을 정리하면, ‘철학의 문학화, 문학의 철학화’가 아닐까 한다.

### Ⅲ. 〈천군기〉의 修養論 形象化와 그 志向價値

〈천군기〉가 철학과 문학의 융복합체라고 할 때 철학과 문학의 비중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세 경우를 상징할 수 있다. 철학 논변이 빠대이고 문학적 형상이 피와 살인 경우, 문학적 형상이 빠대이고 철학 논변이 피와 살인 경우, 철학 논변이 곧 문학적 형상인 경우가 그것이다. 사례를 순서대로 들면, ‘철학 논변을 서정 갈래에 담은 道學詩’와 ‘흥미 위

14) 傳과 小說의 개념 및 관련 양상에 대해서는 朴熙秉, 「17세기 동아시아 戰亂과 民衆의 삶 - 〈金英哲傳〉의 분석」, 『韓國近代文學史의 爭點』, 창작과비평사, 1990, 34~47쪽을 참조한다.

주의 서사 갈래에 孝理念을 주입한 孝行小說'과 '철학 논변이되 문학성을 지니는 寓意的 哲學談論'이 된다. 이 중, <천군기>는 두 번째 사례에 속한다. 소설에다 수양론을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수양론을 어떻게 형상했으며, 그 의의는 과연 무엇인가? <천군기>의 構成과 人物形象을 점검하고 그 철학적 성격을 살핀다면 의문이 해결되리라 본다.

## 1. 構成과 人物形象

<천군기>는 '권력을 잃었던 천군이 권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5)</sup> 권력을 회복한다고 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천군이 자력으로 회복하느냐 측근의 도움을 받아 회복하느냐에 따라 천군의 위상은 달라진다. 전자라면 천군의 권력은 예전과 같이 강성하겠지만, 후자라면 천군의 권력은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해지고 말터이다. <천군기>의 경우는 후자 쪽이다. 천군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들이 나서서 전세를 역전시켰기 때문이다. 천군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충신들의 위상이 빛난다는 점에서, 천군이 낮아지면서 충신들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군은 어떻게 낮아지고 충신들은 어떻게 높아지는가? 작품의 구성을 점검하면서 이 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 A. 천군의 방심과 일탈

- ① 천군이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으나, 壯年에는 방랑하기를 좋아한다.
- ② 옥씨가 천군에게 옥생을 등용하면 생활이 즐거워지리라고 꼬드긴다.
- ③ 성성옹이 간해도 천군이 듣지 않자, 간신들은 성성옹을 참소한다.
- ④ 천군이 성성옹을 쫓아낸 뒤,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자연을 완상한다.

---

15) 작품의 제목에 '기'라는 언급이 있다. '기'가 '제왕의 興亡盛衰가 드러나도록 하는 역사 기록'이므로, 興盛의 측면이 亡衰의 측면보다 비중이 높거나 흥성의 측면이 망쇠의 측면과 엇비슷하리라는 느낌을 준다. 이 느낌은 적중하지 않는다. 의외로 망쇠의 측면이 흥성의 측면보다 높기 때문이다. 작자가 그만큼 망쇠의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가 된다.

B. 천군의 몰락과 위기

- ⑤ 월백이 目官을 쳐서 항복시키고, 목관은 천군에게 항복하기를 권한다.
- ⑥ 口官이 항복하자 아군이 분투했으나 강력한 적세에 무너지고 만다.
- ⑦ 耳官과 鼻官마저 환백에게 항복하자 丹元이 적에게 화해를 요청한다.
- ⑧ 천군은 감면국으로 피난했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다.

C. 충신들의 분전과 천군의 복귀

- ⑨ 유희씨가 천군의 요청으로 성성웅을 부르니, 천군이 반갑게 맞이한다.
- ⑩ 성성웅이 주일웅을 천거하고, 주일웅이 성의백을 천거한다.
- ⑪ 옥씨와 옥생이 대책을 논의하고, 주일웅은 아군진용을 가다듬는다.
- ⑫ 성성웅과 주일웅이 공격하니<sup>16)</sup> 적장이 도망가고, 아장은 승전한다.
- ⑬ 주일웅이 옥생을 배고, 성성웅, 주일웅, 성의백이 천군에게 조회한다.

D. 충신들의 勸戒와 천군의 도덕성 회복

- ⑭ 충신들이 入德門을 세우고 천군이 출입할 때 이 문으로 다니게 한다.
- ⑮ 성성웅이 천군에게 주일웅을 師傅로 섬기면 天理가 들어선다고 한다.
- ⑯ 월백과 환백이 제침했으나 방비가 엄하자 깃발을 내리고 타지로 간다.
- ⑰ 천군이 충신들을 측근에 배치하고,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

<천군기>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D가 그것이다. 시작 지점인 A-①에서부터 심상치 않다. 천군이 正宮<sup>17)</sup>을 벗어나서 방랑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므로, 권력의 정점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천군을 중심에 서게 하는 주역은 충신들이다. 천군이 충신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중심에 복귀는 하되 이전의 권능을 확보하지 못한다. A-①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천군이 D-⑭·⑮에 이를 때 중심 언저리의 側臣에게 간섭받는 데서 그런 점이 드러난다. 작품의 구성이 작자의 몫이라고 볼 때, <천군기>의 작자는 천군이 ‘이탈했던 중심으로 올라

16) 慾生과 欲氏가 천군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할 정도로 적세가 만만치 않다. 이런 정황을 성성웅과 주일웅이 아는지라 正攻法을 취하지 않는다. 제24회에서는 挾攻과 埋伏과 離間計 전술을 구사하고, 제25회에서는 매복 전술을 구사한다.

17) ‘심장의 한복판’을 가리킨다. 제1회의 말미에 나온다. 제27회에 나오는 ‘丹極殿’도 이와 유사하다.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즉 ‘권력의 정점’을 비유하기 때문이다.

18) 해당 부분을 작품에서 찾아보면 “정궁에 거처하는 날이 대체로 적었다.(正宮者蓋少)”가 된다.

게 돌아가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탈했던 중심으로 올바르게 돌아가기’의 구성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천군이 왜 중심에서 이탈했는지부터 파헤치지 않을 수 없다. <천군기>에서는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보여준다.

첫째, 아군 진영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두 차례나 겪는 천군과 성성웅의 갈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의 갈등은 A-③에서 나타나고, 세 번째 갈등은 A-③과 ④에 걸쳐 나타난다. 즉, 첫 번째의 갈등은 성성웅이 천군과 대면해서 喜·怒·哀·樂·愛·惡·慾 7將과 慾生을 멀리하라고 하는 주청을 嘉納하지 않은 데서 생기고, 두 번째의 갈등은 성성웅이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상소문을 올리자 천군은 간신들의 참소에 휘말려 도리어 성성웅을 꾸짖는 데서 생긴다. 천군이 간언을 듣지 않자 성성웅이 물러나기 때문에 갈등의 국면을 떠올릴 수 있다. 갈등도 예사 갈등이 아니다. 성성웅이 탄식하고 물러나면서 던진 한마디 말<sup>19)</sup>은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시사한다. 성성웅이 나라의 중심을 잡는 데 일등공신임을 감안할 때,<sup>20)</sup> 양자의 갈등은 ‘견고한 중심’이 일거에 허물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천군이 도학 이념을 ‘필수불가결한 가치’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학이 곧 실천유학이므로, 실천적 차원의 유학 명제라면 도학 이념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A-③의 “얇은 얼음을 뚫듯이 조심조심하며(薄氷兢業)”라는 어구와 D-⑭의 “入德門이라는 현판을 걸어놓고 천군이 출입할 때 항상 이 문을 드나들게 했다.(揭額曰入德門 令天君出入 常由是門)”는 어구가 그 예이다. 이런 어구는 군왕이 반드시 지켜야 덕목을 지니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군왕이 실천 덕목을 준수했다라면 충신들이

19)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은 대로를 따르지 않음이요, 육생에게 미혹됨은 소로를 따라가는 길이라.(不從吾言 是不遵大路 而迷於慾生 是爲引去於小路也)”가 그것이다.

20) 제4회에서 화자가 ‘천군이 임금이 되어 나라를 세울 때 성성웅이 나서서 기반을 다졌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創業功臣쯤은 된다고 할 수 있다.

21) 도학 전반에 대해서는 신태수, 『寒暄堂 道學詩가 後代 道學詩에 끼친 영향』, 『국학연구론총』25, 태민국학연구원, 2020, 96~102쪽에서 밝힌 바 있다.

‘군왕이 매사에 조심조심하고, 입덕문을 드나들면서 초심을 되새기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터이다. 충신이 화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때, 천군에 대한 화자의 시각은 다음과 같을 것 같다. ‘천군은 도학 이념을 선택적으로 소유하려고 했을 뿐, 반드시 지녀야 할 가치로 보지 않았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셋째, 적장의 잇속과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이다. 적장은 월백과 환백이다. 월백과 환백은 매우 현실적이다. 월백이 목관을 회유할 때, 목관이 술깃해 할만한 잇속을 제시한다. B-⑤의 “내 너에게 숙넛썩을 붙이고 편히 자도록 해주겠다.(吾當使汝交睫安寢)”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한편, 환백은 구관이 꾸넘할 때, 離間計라고 판단하고 말려들지 않으려 한다. B-⑥의 “네가 감히 세 치 혀밖에 안 되는 썩지 않은 헛바닥을 놀려서 나를 홀려 군사를 물리치게 하려고 하느냐?(汝敢掉三寸不爛之說 欲誘我退兵耶)”라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월백과 환백은 잇속에 민감하고 상황을 빨리 판단한다. 월백과 환백이 적장이되 그리 나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까닭<sup>22)</sup>은 누구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터이다. 이 점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천군측 장수보다 더 개성이 뚜렷하고 생동감도 있어 보인다.

요컨대, 천군이 중심에서 이탈하는 원인은 세 가지다. 충신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도학 이념을 ‘필수불가결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고, 적장이 밝은 잇속과 정확한 판단으로 공략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에 의하면 천군의 위력이 약하고 세 번째 원인에 의하면 적장의 위력이 강하다. 천군이 충신과 갈등을 겪거나 도학 이념을 갖추지 않을수록 위력이 약해지고, 적장이 잇속에 밝고 판단이 정확할수록 위력이 강해진다. 이 상태에서 천군이 중심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22) 작품 내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 적대자인 월백과 환백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中大夫 직책의 丹元이 그런 인물이다. 천군 측신의 평가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지 않으리라는 느낌을 준다. 단원의 평가가 나오는 제13회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인용하기로 한다. 월백에 대해 “부드럽되 굳센 것을 이겨내고 약하되 강한 것은 제압한다.(柔能勝剛弱能勝強)”고 하고, 환백에 대해 “계책이 매우 신기하여 참으로 한신이 용구에서 군사를 물로써 덮어버렸던 것과 같다.(運籌極神 眞韓信水淹雍丘)”고 한다.

특정한 계기가 필요하다. 천군이 애초에 약하지는 않았으니, 약한 측면을 보완하면 중심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 <천군기>에서는 천군이 중심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복귀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여러 충신들이 떨쳐 일어나서 적장을 섬멸함으로써 천군으로 하여금 중심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충신들이 적장을 섬멸한 까닭은 ‘合縱’과 ‘連衡’을 구사한 데서 찾을 수 있다. C-⑩에서 성성옹이 주일옹을 천거하고 주일옹은 성의백을 縱적으로 천거하므로 합종이고, C-⑪에서 주일옹이 我將들을 적절하게 배속시켜 위력을 극대화하므로 연횡이다. 충신들이 난리를 수습하면서, 천군의 위력은 현저하게 달라졌다. 천군 스스로가 막강한 위력을 지녔던 예전과는 달리, 위력을 거의 지니지 못했다. 위력이라고 해보았자, 충신이 부여한 위력이기 때문이다. 이 지경에 이르니, 천군의 위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천군이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아도 무방했으나, 난리 이후에는 충신의 간언을 무조건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천군의 위상이 충신의 위상보다 더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왕권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충신’이라는 꺼풀을 벗겨내면 臣權이 王權보다 우위에 선다고 평가해 봄직하다.

## 2. 心學的 志向價值

<천군기>에서는 心學의 개념을 寓意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人名 모두가 심학의 개념이고 각기 도학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해당 사례는 많다. 心의 특정 氣象을 가리키는 천군,<sup>23)</sup> 敬을 가리키는 성성옹과 주일옹, 意를 가리키는 성의백, 外物을 가리키는 월백과 환백, 人欲을 가리키는 욕씨와 욕생이 그 예이다. 心・敬・意・外物・人欲을

23)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천군을 ‘心의 의인화’라고 한다. 心을 의인화했다고 한다면, 心圈의 여러 개념을 포괄적으로 의인화했다는 의미가 된다. <천군기>에서는 여러 개념이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니, 여러 개념을 포괄적으로 의인화했다는 언급은 옳지 않다. 심권의 특정 기상을 의인화했다고 해야 옳다.



합하면 도학적 의미망이 형성된다. ‘敬이 心에 깃들일 때는 외물이 근접하지 못했으나, 敬이 떠난 뒤 인욕이 발동하고 外物도 쳐들어온다. 心이 敬을 불러들인 후에 天理가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도학의 의미망이다. 여러 인명이 제 자리를 찾아 도학의 의미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천군기〉는 인물의 위치를 통해 도학 개념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천군기〉의 인물이 어느 정도 독자성을 지니는지가 관건이다. 도학의 개념과는 달리, 거의 모든 인물이 독자성을 지닌다. 도학의 개념인 性과 情, 敬과 意, 未發과 已發, 天理와 人欲, 中과 和를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性은 도덕적 본원이고 情은 性이 드러난 상태이며, 敬은 조심하고 집중하는 心의 자세<sup>24)</sup>이고 意는 心의 발출 상태이며, 未發은 의식이 발하기 전의 지각이 어둡지 않은 靜의 상태이고 已發은 의식이 발해 지각이 밝아지는 動의 상태이며, 天理는 하늘에서 받은 착한 본성이고 人欲은 기질에서 생겨난 過不及의 국면이며, 中은 性의 體段으로서 절대도덕의 경지이고 和는 情이 節度에 맞는 경지이다. 이런 개념들은 心의 氣象에 영향을 받지만, 〈천군기〉에서는 心의 기상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意와 敬과 人欲이 각기 성의백, 성성용·주일용, 욕씨·욕생이라는 個物이 되어 천군과 대응한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왜 성의백, 성성용·주일용, 욕씨·욕생이 독자성을 지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학 개념의 의인화 과정’을 감안하면 쉽게 풀린다. 작자가 도학 개념을 의인화할 때 개념상으로는 심권에 배속시키되 의외로 행위와 인식에 독자성을 부여한다. 만약, 敬이나 意나 人欲에 독자성

24) 도학과 〈천군기〉의 敬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도학의 敬은 ‘心 스스로 조성하는 통제나 수렴의 자세’이고 〈천군기〉의 敬은 ‘도학의 敬을 의인화하여 등장시킨 작중인물’이다. 도학의 敬과 〈천군기〉의 敬이 다르므로, 敬의 유무를 거론할 때도 서로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다. 도학에서는 ‘지니다’나 ‘지니지 않다’라고 해야 하고 〈천군기〉에서는 ‘불러들이다’나 ‘떠나가다’라고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도학의 敬을 거론하면서 ‘불러들이다’나 ‘떠나가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도학의 敬에 대해서는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출판부, 1998, 74쪽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꼬이고 만다. 개별 인물인 성의백, 성성웅 · 주일웅, 옥씨 · 옥생이 역시 개별 인물인 천군에게 예측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군 개체에 예측된다고 할 때, 소설이 지녀야 할 긴장감과 박진감을 상실하고 만다. 소설을 지향하면서도 인물 때문에 소설로서의 품격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황당해진다. 황당한 국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敬이나 意나 人欲에 해당되는 인물에게 독자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독자성이 心의 기상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학으로 보아서는 훼손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을 위해 철학을 일부 버린 셈이 된다.

철학의 몇몇 개념이 독자성을 지닌다면, 천군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천군은 외톨이다. 여러 인물들이 독자성을 지니고 천군의 영향력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천군이 무엇의 의인화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제1회에 나타난 천군의 특성이 단서이다.<sup>25)</sup> “明德”과 “虛靈”이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명덕’은 ‘본성의 밝은 덕’을 가리키고 ‘허령’은 ‘텅 비고 신령한 心의 體’를 가리킨다. 두 용어가 모두 ‘本性이요 心의 體인 天理’를 가리키므로, 천군은 ‘천리의 의인화’이지 ‘心의 의인화’가 아니다. 그 이유는 천군이 ‘心의 體’일 따름이고 ‘心의 體와 用’의 의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sup>26)</sup> 이렇게 보니, 문학에서는 천군의 위엄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다. 철학에서는 천군이 心의 體인 天理이어서 천지만물의 주재자라고 하지만, 문학에서는 주변 인물이 거의 없는 외톨이 군주라고 한다.

문학에서 터무니없이 천군을 외톨이 군주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심학 개념을 동원해서 천군의 정황을 설파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천군은 氣質에 심하게 휘둘린다. 제1회의 “한곳에 머물지 않는

25) ‘명덕’과 ‘허령’은 心의 體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心의 體와 用’ 모두를 일컫는 ‘神明’과는 다르다.

26) 지금까지 소설 연구자들이 ‘心의 體’와 ‘心의 體와 用’을 분별하지 않고, 천군을 뭉뚱그려 ‘心’의 의인화라고 일컬어왔다. 천군을 ‘心의 體’인 천리의 의인화라고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다.(不住一處)”는 언급이 그 근거이다. 이 지경이라면 未發時에 敬으로써 천리, 즉 道德의 本源을 함양해야 하겠지만, 천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sup>27)</sup> 제6회의 “노는 데 빠진다.(耽遊)”는 언급이 그런 정황을 시사한다. 그 결과, 심병을 피할 수 없었다. 천군은 오직 居敬만이 심병의 해법이라고 여겨, 서둘러 敬을 불러들인다. 敬은 불러왔지만, 눈치를 보지 않는다. 즉,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천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제27회의 “丹極殿에 들어가다.(御於丹極殿)”는 언급이 그런 의미이다. 천군이 未發時에 수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병을 앓았고, 敬을 통해 已發時의 난맥상을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천군기〉의 寓意를 걷어내고 보니, 심학의 개념들이 수양론을 지향한다. 천군의 위상 추락이 그 대가이다. 천군이 추락하면서 수양론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전적으로 수양론뿐인가?’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우의적 수단인 정치판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천군기〉의 화자가 포착한 정치판은 그야말로 엉망이다. 군왕은 충신을 몰라보고, 간신은 권력을 취하기에만 혈안이다. 화자가 작자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때, 화자의 시각은 부침을 거듭한 작자 黃中允의 이력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다.<sup>28)</sup> 작자가 천군담론의 전통에 의거해서 심병 치유를 지향했는지언정 정치담론의 성격도 아울러 지닌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천군기〉의 지향가치를 압축해서 제시하면, ‘수양론 형상화의 지향가치, 그 심병 치유와 정치판 치유!’가 그것이다.

27) 한자경, 「미발지각이란 무엇인가? - 현대 한국에서의 미발 논쟁에 관한 고찰을 겸함」, 『철학』123, 한국철학회, 2015, 1~23쪽에 의하면 도덕적 본원이 활동성을 지닌다고 한다. 활동성이 ‘활동 가능 근거’를 의미한다고 볼 때, 〈천군기〉의 천군은 ‘도덕적 본원의 활동 가능 근거’를 충분하게 함양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8) 이에 대해서는 金東協, 「儒家의 人間 理解 試論」, 『韓國文學研究』14,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1992, 212~213쪽 참조할 만하다.

## IV. <천군기>의 지향가치에 대한 새로운 認識

<천군기>의 주된 지향가치는 ‘심병 치유’이다. 심병 치유는 범상치 않다. 심병을 앓는 현대인이 많고, 환자라면 누구나 치유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인은 심병이 고질병이어서, 自家治癒가 어렵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가치유가 어렵다고 여기니, 바깥에서 해법을 찾는다. 요가, 콘서트, 기공명상 등이 그 예이다. 심병이 고질병인가? <천군기>의 화자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道德的 免疫力과 主體的 位相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시각을 <천군기>에서 확인하고 문화콘텐츠 구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로 한다.

### 1. 本性의 免疫力과 그 治癒 機能

인간의 本性은 하늘로부터 품수한 천리이다. 『中庸』의 “天命之謂性”의 ‘性’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본성은 도덕적 본원이다.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본성을 잘 지키기만 해도 赤子心이니 道心이니 本心이니 하는心を 지닐 수가 있다. 본성이 心を 튼튼하게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본성을 미발시에 함양하면, 본성이 情으로 발출할 때도 中節의 和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한다면 심병을 앓지 않을 터이다. 현대인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순선무악한 본성을 지닌 줄도 모르고 있고, 설사 지닌 줄을 안다고 해도 함양하거나 보유하거나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심병을 앓는다. 앓지 않아도 될 심병을 앓는 셈이 된다. 본성의 특징을 헤아리고 함양 방법을 터득해서 치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성은 면역력을 지니고 있다. 면역력이 ‘독소를 막는 능력’이므로, 본성이 인욕이라는 독소를 막는다면 면역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이

29) 신태수, 『인성면접 문제풀이』, 지성인, 2019, 17~19쪽에서도 ‘본성의 면역력’에 대

와 연관된 언급을 맹자가 한 바가 있다.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遏人欲存天理·『孟子』梁惠王 下)”라는 언급이 그것이다. 이 어구에서 ‘인욕을 막고’라는 구절이 면역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천리가 인욕을 막는다는 의미이니, 천리가 면역력을 지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천리가 인욕을 막다가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천리의 자리에 인욕이 밀려온다. 인욕은 시대가 흐를수록 강해지는 바이니, 애초의 천리로서는 막아내기 어렵다. ‘戒愼恐懼’, 즉 新儒學에서 언급하는 敬<sup>30)</sup>을 조성해서 면역력인 천리를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면역력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는 점에서, 함양이 치열하거나 맹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향가치가 <천군기>에서 나타난다.

<천군기>의 천군이 본성이다. 性卽理說에 의하면, ‘본성이 곧 천리라.’고 했으니, 천리인 천군을 본성으로 바꾸어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다. 본성의 면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군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된다. 화자는 천군의 明德을 거론하면서 “못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점의 더러운 찌꺼기도 없으니, 아마 하늘이 주었으리라.(淵澄玉滢 無一點塵累 殆天授也)”고 했다. 명덕이 순선무악하다고 하므로, 순선무악한 명덕은 본성일 수밖에 없다. 본성은 면역력을 보유한다. “조금씩 스스로 게을러져 스스로 지키기를 요긴하게 여기지 않고(稍自懈怠 不喫緊自守)”라는 언급에 그런 의미가 담겼다. ‘스스로 지키기’가 ‘면역력’을 시사한다. 본성을 지킨다고 하면 천리를 지닌다는 의미이고, 천리를 지닌다고 하면 면역력으로 인욕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본성은 면역력을 보유하고, 이 면역력이 인욕을 막는 최고 수단이다.

면역력이 인욕을 막아내기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유가의 수양론에 의거하면, ‘인욕 막기’는 修己治人の ‘修己’에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修己’는 ‘治人’으로 나아가는 필수 단계로서,<sup>31)</sup> 仁을 핵심 목표로 삼

---

해 논의한 바가 있다.

30) 『論語』衛靈公篇의 集註에서 敬을 ‘戒愼恐懼’라고 풀이하고 있다.

31) 『大學』의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八條目에서 修己에 해당되는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 이후에 治人에 해당되는 ‘齊家→

는다. 미발시에 함양하고자 하는 ‘도덕적 본원’이 ‘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sup>32)</sup> 물론, 이때의 仁이란 ‘만물일체의 가능 근거’ 정도이겠지만, 그런 仁을 지켜내는 수단이 다른 아닌 면역력이다. 면역력이 본성의 방어막인 셈이므로, ‘치인’ 활동시에 본성이 발현될 때 본성과 아울러 작동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시각에서 <천군기>의 주인공인 천군의 면역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천군의 면역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미발시의 수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仁을 구현할 도덕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心城에 복귀한 후에 충신들에게 이끌려간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천군기>는 仁의 기반이 부족한 천군을 통해 미발시의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천군은 仁의 함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충신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논점에 입각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 본성이 도덕적 본원이라는 점, 본성이 도덕적 면역력을 지녔다는 점, 敬으로 함양해야 仁 실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보의 내용을 종합하면 心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된다. 자기 자신이 心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심병이 든다. 심병을 앓는다고 해서 바깥에서 특효약을 찾는다면, 緣木求魚나 진 배 없다. 본성이라는 도덕적 본원, 즉 仁을 함양해나갈 때 심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여기고, 仁의 함양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敬에 의한 함양’이 전제되지만 한다면, 독서와 명상과 회화와 등산과 글쓰기 등의 공부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sup>33)</sup>

## 2. 心의 宇宙的 性格과 主體的 位相

治國→平天下’가 이어지는 데서 확인된다.

32) 이에 대해서는 정은해, 앞의 글, 31~35쪽에서 논의하고 있다.

33) 정순태, 「芝山 曹好益의 賦에 나타난 苦痛과 그 治癒方式」, 『국학연구론총』25, 태민국학연구원, 2020, 291~297쪽에서 ‘회고적 글쓰기를 통한 발설의 쾌감과 자기 발견’이 심병이 치유 방안이라는 논법을 펼치고 있다. 경청할 만한 지적이라 여겨진다.

유학에서는 우주적 원리가 선천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았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周易』繫辭傳)”는 선언에 그런 관점이 담겼다. 우주적 원리에 대한 관점은 연역적이지만, 유학자들이 의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周敦頤가 <太極圖說>을 작성하면서 연역적 관점에 견고한 체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주돈이는 <태극도설>에서 우주 생성 과정에서 인간만이 영묘한 이치를 얻었다고 했다. ‘영묘한 이치’가 깃든 곳은 心이고, 心 가운데서도 本性이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萬物皆備於我矣・『孟子』盡心 上)”고 하는 名句가 그런 정황을 시사한다. 心은 인간의 身에 들어 있으면서도 우주적 성격을 지닌다는 언급이 이로써 가능해진다.

心的 우주적 성격은 주체적 위상과 연관된다. 인간이 心을 통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心이 주체성 담론의 대상이 된다. 인식 기능만이 주체성 담론의 근거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맹자는 心을 內的 機制로 두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外적 기제로 확장시켰다. 즉, 心에 대해 ‘자율성 내지 자발성을 지니면서 外物을 수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주체’라고 판단했다.<sup>34)</sup> 맹자가 제기한 心의 주체성 담론은 신유학 시대에 들어와서 꽃을 피운다. 여러 도학자들이 心에다 ‘理’를 설정하면서 心을 命物者라고까지 규정한 점이 그 근거이다.<sup>35)</sup> 이 외에도 心의 주체성을 강조한 용어는 많다. ‘立人極’과 ‘心如理一’은 그 좋은 사례이다.<sup>36)</sup> 요컨대, 心의 우주적 성격이 心의 주체적 위상을 가능하게 한다.

34) ‘牛山之木’ 고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고사에서는 良心이 사라져서 牛山이 벌거숭이가 되고 말았지만, 仁義가 작동하면 예전 상태의 우산이 된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35) ‘命物者’란 ‘만물에게 명하는 주체’의 의미로서, 心의 주체적 성격을 강조한 용어이다. 朱熹, 『朱子大全』卷67, 觀心說과 程敏政, 『心經附註』卷4, 心箴과 李滉, 『退溪全書』卷13, 答李達李天機에 나온다.

36) ‘立人極’은 ‘人極을 세운다’는 의미를 지닌다. 周敦頤가 <太極圖說>에서 ‘인간의 위상이 心으로 인해 천지의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취지로 사용하면서, 인간 본위의 사유방식을 중시하는 도학자들에게 회자되었다. ‘心如理一’은 ‘마음을 수양하면 만물에 대한 이치가 밝아져서 마음과 物理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程顥가 『二程全書』識仁篇에서 ‘인간존재가 천리 인식의 주체’라고 하는 취지로 사용한 이래, 인간

心의 주체적 위상이 우주적 성격에 편승하여 고차원의 주체성 담론을 형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천군기>에는 이른바 ‘고차원의 주체성 담론’이 뚜렷하게 담겨 있다. 주인공인 천군은 우주적 성격을 지녔다. 제1회에서 ‘하늘의 덕을 지니고 태어나 하늘의 밝은 명(天明命)을 받은 까닭에 천군이라고 부른다.’고 하니, 천군이 <태극도설>에서 언급한 ‘영묘한 이치’를 본성으로 품수했다고 할 수 있다. 心은 내적 기제로 머무르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외적 기제로까지 확장된다. 제16회에 그런 내용이 있다. 천군이 성성옹을 불러들이자는 有懷氏의 주청을 가납하여, 인욕을 물리칠 진술과 전략을 구축하고자 애쓴다. 천군이 인욕을 물리치고자 한다는 점에서, 외적 기제로서의 心이 작동한다고 해도 좋다. 心이 우주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여 주체적 위상을 지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천군의 心이 우주적 성격을 지니되 주체적 위상을 지니지 못했음을 상기할 때, 주체적 위상은 조건부라 할 수 있다.

왜 천군이 주체적 위상을 지니지 못했는지가 의문이다. 미발시의 수양 부족이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천군은 ‘영묘한 이치’를 본성으로 품수했지만, 지키지도 못했고 함양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復權이 된 후에 충신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되었으니, 주체적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화자의 논법이 매우 특이하다. 心이 우주적 성격을 확보할 때 저절로 주체적 위상을 지닌다고 하지 않고, ‘미발시의 수양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체적 위상을 새롭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논법이 선행 담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가 동양철학의 논리를 깊이 파헤쳤다는 의미가 된다. 화자에 따르면, ‘미발시의 수양 여부’가 주체적 위상의 관건이다. 화자가 동양철학의 논리를 대충 따르지 않고 창의적인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천군기>가 ‘고차원의 주체성 담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고차원의 주체성 담론’은 시사하는 바 크다. 수양으로 본성을 함양하

---

중심적 가치관을 표방하는 도학자들에게 널리 애용되었다.



지 않는다면,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수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천군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천군기〉는 두 교훈을 준다. 우선, 인욕을 억누르라고 한다. 인욕은 지존의 위엄도 무너뜨린다. 하늘의 정기를 받은 천군조차 무너지는 데서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우주의 生意를 받아들이라고 한다. 생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뜻’으로서 천지만물 누구나 지니고 있다. 천군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전 측신이 동조했음을 되새겨 봄직하다. 천군은 측신의 생의를 느끼고 있었고 측신은 천군의 생의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교훈은 오늘날 유용하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인욕이 들끓거나 남과 불통되거나 해도 느끼지 못한다. 〈천군기〉의 교훈은 이런 현대인에게 좋은 처방이 된다.

## V. 결론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역주 사업〉이 7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필자는 역주 사업의 일원이다. 고소설 역주본을 활용해서 高附加價值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天君紀〉를 통해 의무감에 부응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천군기〉에 반영된 철학이 心性論이라고 하나, 그릇된 측면이 있다. 〈천군기〉에 반영된 철학이 修養論이기 때문이다. 왜 수양론이 반영되었는지를 밝히고 철학 치유의 문화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천군기〉는 天君談論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다. 천군담론이 종래에는 수양론을 설명·전달하는 교술 갈래였지만, 〈천군기〉에 이르러 수양론을 전달하는 서사, 특히 소설 갈래로 전환되었다. 천군담론이 갈래 변화를 통해 방향을 바꾸었다고 여겨진다. 즉, 천군담론이 애초에는 부조리 현실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가 〈천군기〉 이후부터는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천군기〉를 기점으로

하여 천군담론이 방향을 전환한 바이니, 이 새로운 영역에서 철학과 문학이 손을 잡고 공동의 몫을 크게 일구어가야 하리라 본다.

공동의 몫은 ‘수양론의 敍事化’이다. ‘수양론의 서사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군은 애초부터 중심을 벗어난다. 아군 진영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천군이 도학을 ‘필수불가결한 가치’로 보지 않고, 적장이 잇속에 밝다는 점이 그 원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은 變數이고 세 번째 원인은 恒水라고 볼 때, 변수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천군기>에서는 변수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해법을 도학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 점에서 <천군기>가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수양론을 형상화했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천군기>에서는 存心養性の 수양 방법, 즉 未發時의 涵養을 중시한다. 물론, 존심양성에 입각한 수양 방법만을 형상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치판의 문란한 상황이 <천군기>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정치판의 상황은 ‘부침을 거듭한 작자 황중윤의 이력’과 깊은 관련이 있을 성싶다. 작자가 선행 천군담론에 의거해서 心病 治癒의 내용을 다루고자 했을지언정, 정치담론의 성격도 아울러 지닌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시각에서 <천군기>의 지향가치를 압축해보면, ‘수양론 형상화의 지향가치, 그 심병 치유와 정치판 치유!’가 된다.

<천군기>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병에 대해 현대인은 고질병이라고 여기는 데 반해, <천군기>의 화자는 고질병이 아니라고 여긴다. 화자의 시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성이 면역력과 치유 기능을 지닌다는 점이 그 첫 번째이고, 心이 우주적 성격과 주체적 위상을 지닌다는 점이 그 두 번째이다. 두 시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동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각을 구체화하는 데는 도덕적 본원, 즉 仁을 함양하는 공부가 필요하고, 두 번째 시각을 구체화하는 데는 인욕을 억누르고 천지만물로부터 生意를 느끼는 공부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1년 4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南冥集』            『論語』            『大學』  
『心經附註』        『宋元學案』       『二程全書』  
『朱子大全』        『中庸』            『退溪全書』
- 강혜규, 「천군계 작품의 사적 고찰」, 『정신문화연구』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305~310쪽.
- 금장태, 『퇴계의 삶과 철학』, 서울대출판부, 1998, 74쪽.
- 금장태, 「退溪의 心合理氣說과 寒州의 心卽理說」, 『한국유학의 心說』, 서울대출판부, 2002, 51~56쪽.
- 金光淳, 『天君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80, 1~130쪽.
- 金東協, 『黃中允 小說 研究』, 경북대 박사논문, 1990, 1~96쪽.
- 金東協, 「儒家的 人間 理解 試論」, 『韓國文學研究』14,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1992, 212~213쪽.
- 金秀永, 「〈天君紀〉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11, 2~157쪽.
- 金鍾錫, 「마음의 철학 - 그 구조와 작용」, 『퇴계학의 이해』, 일송미디어, 2001, 142~165쪽.
- 朴熙秉, 「17세기 동아시아 戰亂과 民衆의 삶 - <金英哲傳>의 분석」, 『韓國近代文學史의 爭點』, 창작과비평사, 1990, 34~47쪽.
- 신태수, 「寒暄堂 道學詩가 後代 道學詩에 끼친 영향」, 『국학연구론총』25, 태민국학연구원, 2020, 96~102쪽.
- 신태수, 『인성면접 문제풀이』, 지성인, 2019, 17~19쪽.
- 李相弼, 「龜巖 李楨의 學問 標的 - <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南溟學研究』23, 慶尙大 慶南文化研究院, 2007, 263~285쪽.
- 李承煥, 「退溪 未發論 釐清」, 『退溪學報』116, 退溪學研究院, 2003, 67~102쪽.
- 장봉수, 「〈天君傳〉과 愁城誌의 비교 연구」, 『국학연구론총』15, 태민국학연구원, 2015, 134~137쪽.
- 정순태, 「芝山 曹好益의 賦에 나타난 苦痛과 그 治癒方式」, 『국학연구론총』25, 태

민국학연구원, 2020, 291~297쪽.

정은해, 「주자의 수양론의 불교적 해석」, 『철학사상』52,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14, 29~39쪽.

홍성민, 「朱子 哲學에서 未發 涵養의 문제」, 『철학연구』104, 대한철학회, 2007, 289~310쪽.

한자경, 「미발지각이란 무엇인가?」, 『철학』123, 한국철학회, 2015, 1~23쪽.

Abstract

## The Embodiment of Training Theories and New Perceptions of Values Sought After in *Cheongungi*

Shin, Tae-soo

*Cheongungi* holds revolutionary status in the history of the Cheongun discourse, which used to be a didactic genre of explaining and conveying training theories. It was converted into a novel genre of embodying training theories by the time of *Cheongungi*. There is a need to focus on characters of *Cheongungi*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genre conversion. The main characters include Cheongun, the Loyal Subject, and Enemy General. Cheongun loses his Bonseong by neglecting his cultivation of Mibalsi. The Loyal Subject reprimands Cheongun that is lazy with his training. The Enemy General is sensitive to interests. The speaker of *Cheongungi* introduces the Enemy General has a quick eye for profit rather than being a bad man. He highlights Cheongun's restoration of his Bonseong by the help of his Loyal Subject. The author's viewpoint of the political scene those days is projected on this value sought after by them. The value sought after in *Cheongungi* provides two lessons for modern people. One is that Bonseong has immunity and healing functionality, and the other is that the mind has cosmic nature and independent status. Each of the lessons is followed by their training methods: reading, meditation, painting, climbing, and writing will be proper for the first lesson, and episodes about Simseong of Toigye and Judoni will be fit for the second lesson.

**keywords :**

the Cheongun discourse, Cheongungi, cultivation, immunity, healing  
functionality, cosmic nature, independent status.